

한전공대 설립 비용 지자체에 손벌리기? 한전, 글로벌 기업 인재양성 적극 투자를

재정투입 계획 안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요구
입지 선정 문제도
“알아서 협의하라” 논란 남겨

한전공대(가칭) 설립을 위한 밀그림력인 중간용역 보고서가 10일 공개됐지만, 설립 주체인 한전은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요구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서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가 알아서 협의하거나, 용역 전문가에 전권을 일임하는 방안을 제시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한 인허가 가능한 부지(국·공유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여 한전공대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대학 설립 주체인 한전의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전은 성공적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 인적·물적 자원공유 등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역할을 한정했다.

특히 다각적 자금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대학 설립·운영 자금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전의 재정적 어려움만을 강조했다. 최근 3분기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과 15조 원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사업 추가 투자 발생, 매년 출연금 상당 손익의 감소(연평균 1400억원 수준), 부채비율 4% 포인트 이상 상승 등을 밝히며 재정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사립대 56% 이상이 재정



10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한전공대 광주유치추진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악화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의존도가 심화 추세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전력 기금 활용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과 인프라 조성 전담까지 제시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 조성을 포함한 대학 설립을 위한 재정 부담을 거의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지 확보에서부터 대학 건축물 신축, 기자재 확보 이외에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1000여 명에게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전액 면제해주고,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에게 억대의 연봉 대우 등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용역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투입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입지 선정 문제도 광주와 전남 지자체가 합의 추천해 최단기간 부지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하는 방식과 용역 내 ‘전문가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부지를 선정’하는 방식 등 2가지 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입지 선정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한전 스스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는 연구기반과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공대를 절박한 심정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타의에 의한 보여주기식 대학 설립이 아니라 한전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장기 계획의 틀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전이 주도적으로 최적의 한전공대 부지를 찾고, 지자체가 상생 차원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모 측면에서 기대보다 작아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며 “논란이 된 부지선정방식과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인상으로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군공항 소음 피해 광주 서구 주민 정부 배상금 500억 지급 받을 듯

2만여명 1인 평균 250만원

설명했다.

광주시 서창·마복·치평동 주민 2만여 명이 군 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총 500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옥수 민주당 광주시구의회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서창동사무소에서 열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소송 승소보고회’에서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 간 조정안이 합의됐으며,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 적용하며, 전체 소송 기간 중 소송 중단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음도 85웨벨(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3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 받으며, 90웨벨 이상과 95웨벨 이상 지역 주민은 각각 월 4만5000원·6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김 의원은 또 “소음도 85웨벨 이상 지역 주민 2만여명이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배상금 총액은 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참여 주민의 배상금 수령이 마무리 되는대로 배상금을 받지 못한 다른 원고 주민과 함께 추가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 주민들은 ‘광주 서구지역 공항소음피해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 공항 전주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한 달 간의 조정을 거쳐 배상지급안에 합의했다. 이같은 배상지급안에 대한 확정판결은 오는 18일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자택 격리 메르스 밀접 접촉자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 탄 직장 동료

市, 비상방역대책본부 가동
일상 접촉자 11명 검진 관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A(61·서울)씨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광주 거주 메르스 밀접접촉자가 A씨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광주시가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관련기사 6면>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비행기에서 A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B씨를 자택에 격리 중이며,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B씨는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는 전남대병원 원고조산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개소 12병상의 가동 준비도 마쳤다. 특히 B씨는 확진자와 근거리에서 있었던 만큼, 광주시는 B씨 아내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를 관찰하고 있다.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B씨는 직장 동

료인 A씨와 지난 6일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EK860편)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는 앞서 쿠웨이트에서 B씨가 A씨와 동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만일에 대비해 지난 7일 B씨와 인천-광주 고속버스를 함께 탄 승객들의 신원 파악에도 나섰다.

광주시는 확진자 A씨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광주 거주 ‘일상 접촉자’ 11명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하루 2차례 검진하는 능동형 감시체계로 전환해 매일 증상 유무를 관찰한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이며, 일상접촉자는 그 이외의 접촉자를 말한다.

또 이날 현재 전남 거주자 중 일상접촉자는 여수와 나주에 각 1명씩 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상 생활 중 매일 2차례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최진석의 老莊의 생각
- 좌우 날개의 성숙과 새의 비상 ▶18면
KIA 타이거즈 전담대
- NC·롯데 원정 열세를 만회하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항로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정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징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